

“게임 룰 바뀌었다... 고정관념 깨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출근 재개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 집중 실행
비대면 회의 효율적... 고민 필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본에 머물다 두 달여 만에 국내 경영 현장에 복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성장동력 발굴을 주문했다.

20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임원회의에 참석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기존의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법칙과 게임의 룰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번 위기만 잘 넘기자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쌓아온 경쟁우위가 그 힘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예상되는 트렌드 변화와 우리 사업의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의 전환, 빠른 실행력을 통해 임직원 모두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원회의는 두 달 만에 열린 대면 회의로, 롯데지주 대표이사외 각 실장, 4개 비즈니스유닛(BU)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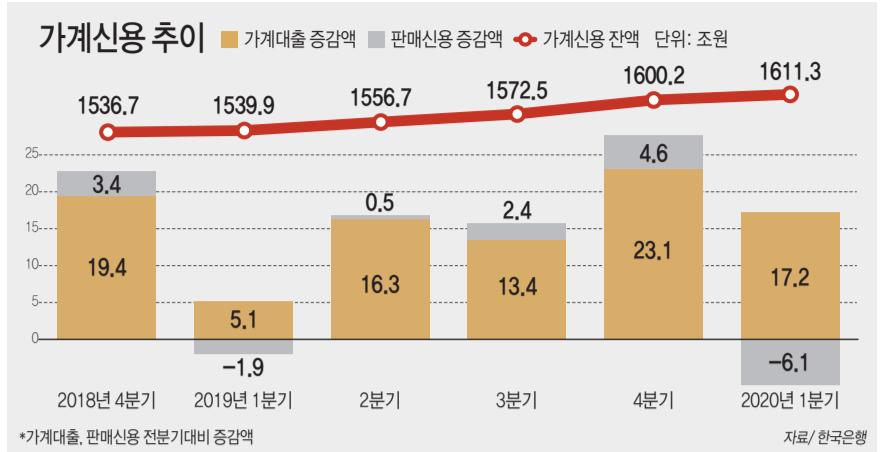
신 회장은 지난 3월 일본으로 출장을 간 뒤 이달 2일 귀국, 자택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친 후 18일부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일본에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했고 자가격리 기간에는 화상회의 등으로 경영 현안을 챙겼다.

그는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경험을 두고 “비대면 회의나 보고가 생각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은 오히려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회장은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서 “업종별, 업무별 이런 근무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에 따라 본인도 향후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코로나에 카드 사용 줄고 가계빚 1610조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판매신용 잔액 6.1조 감소
주담대 2년 반만에 큰 규모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610조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카드 이용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61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원(0.7%) 증가했다. 이는 잔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0.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가폭도 지난해 4분기(27조7000억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89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조1000억원(6.4%) 감소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해졌고, 카드 이용금액이 감소하면서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판매신용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521조7000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2000억원(1.1%)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5조1000억원) 보다는 확대됐지만 전분기(23조1000

억원)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858조2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15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5조9000억원)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큰 증가 규모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663조5000억원)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기타대출은 연말·연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에 증권사의 신용용자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780조6000억원)은 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542조7000억원)는 8조7000억원, 기타대출(238조원)은 4조2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313조9000억원)은 2조3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주담대(96조9000억원)는 2조8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타대출(217조원)은 5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427조2000억원)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 양수액 증가 등으로 주담대가 9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편 여전히 소득보다 가계빚이 여전히 빨리 늘고 있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자금순환표 기준 98.2%를 나타내 전분기 96.6%보다 상승했다.

/김희주 기자 hj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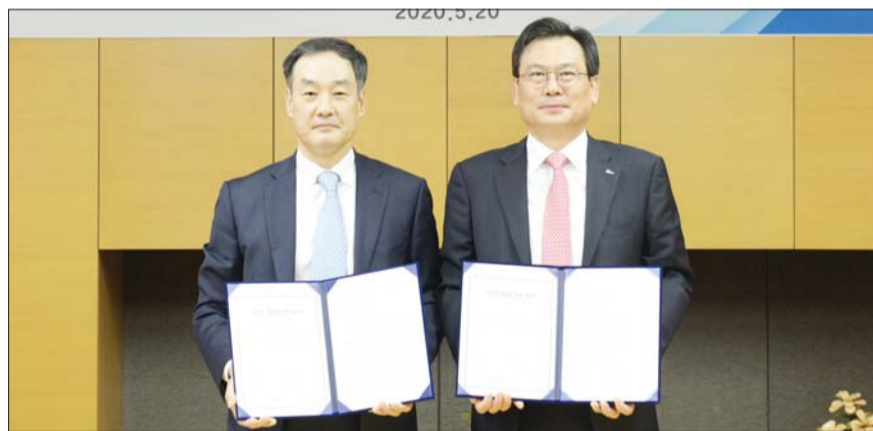
포스코ICT, 효성과 스마트팩토리 협력

통합생산·공급망 관리시스템 개발
분야별 솔루션 제공... 양사 기술 융합
스마트 세이프티 등 공동 추진 예정

포스코ICT와 효성그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확산에서 협력한다.

포스코ICT와 효성ITX는 포스코ICT 판교사옥에서 스마트팩토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 운영하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과 공급망관리시스템(SCM) 등을 공동 개발, 국내외 제조현장으로 확산한다.

포스코ICT는 포스코가 운영하는 제철소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면서 확보한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효성ITX는 이미지 분석 프로세싱, 설비관리 등 분야별 솔루션을 제공해 양사 기



포스코ICT 손건재 사장(오른쪽)과 효성ITX 남경환 사장이 경기도 판교 포스코ICT 사옥에서 스마트팩토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술을 융합한다. 공동 마케팅을 펼쳐 시너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처럼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두 그룹간의 협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ICT는 포스코와 함께 제철소 스마트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추진,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

F)이 선정하는 ‘등대공장’으로 선정되는데 역할을 했다.

양사는 건설과 제조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세이프티와 사무업무 스마트화를 위한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RPA), 음성인식, 챗봇 솔루션 적용도 공동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사회공헌활동 담은 글로벌 웹페이지 공개

삼성전자가 전세계에 사회공헌활동을 알리고 나섰다.

20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사회공헌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웹사이트는 지난해 새로 만든 CSR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과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메인화면에는 사람과 이야기에 집중한 대표 스토리를 보여주며,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 글로벌 사회공헌 웹페이지.

/삼성전자

언어는 10개를 지원한다. 국가별로도 따로 사이트를 나눠 각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부터 운영 중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인도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김재용 기자 juk@

세계적 스타트업 페스티벌 위한 조직위 출범



서울 DDP서 11월 19~21일 개최

‘컴업(COMEUP) 2020’ 성공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컴업은 국내 최고의 권위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혁신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로 올해는 11월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프라자(DDP)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벤처창업 페스티벌’에서 핀란드의 슬러시(Slush), 미국의 테크크런치(Tech Crunch) 등과 같은 세계적 스타트업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컴업(COMEUP)’ 브랜드를 론칭했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서초 한화드림

플러스 강남에서 ‘2020 컴업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들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꾸려진 조직위는 올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6개월 간의 준비 일정에 돌입한다.

컴업의 올해 슬로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맞이할 가까운 미래를 한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Meet the Future-Post Pandemic’으로 정했다.

아울러 사회 시스템(Social System), 일(Work), 삶(Life)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4개씩의 색션을 구성해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스타트업 눈으로 조망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